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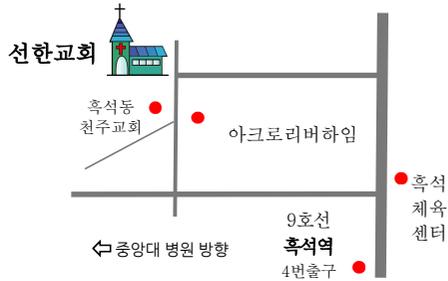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안나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조계승 (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편도선, 이태수	관리장로	손석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천사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의 방식 (빌 4:1-7)

-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계 6:10)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5장 (통일찬송가 50장)	
교 독 문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찬 양 과 경 배	505장 (통일찬송가 268장)	
기 도	이태수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6장 9~17절	업 1:15~23
설 교	두 번째 환상: 7인 심판2 (임춘배 목사)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주 앞이라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안나회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커피브레이크 모임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심지숙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7장 1~24절
설 교	노아와 홍수 (임춘배 목사)
찬 양	488장(통일찬송가 539장)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 임춘배 목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 1~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청소년부/청년부입니다.
 -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제 직 회** 오늘 2부 예배(11시)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 부 활 주 일** 20일 주일은 부활주일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 헌 신 예 배** 20일 주일 오후 예배는 조이앤드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청 년 부** 오늘 청년부 예배(1시)는 제직회로 인하여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드립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신앙이 되도록.

찬송 :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

본문 :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감각기관이 귀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늦게까지 열려 있는 기관도 귀라고 합니다.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을 넘어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옛 사고방식과 고집, 죄 된 본성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귀가 열리려면 불 같은 말씀과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마음의 벽이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마음의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진과 불, 강한 바람 같은 땅의 소리가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조종하려는 크고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리가 끝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부드럽고 약한 마음의 소리가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일 뿐입니다.

둘째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들이 불 같은 말씀으로 태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소리에 인생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나무 풀 짚처럼 쇠하고 없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불 같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금은보화와 같은 하나님 말씀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준 마음의 기준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든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이 만들어낸 마음의 벽들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파괴되고 부서지고 파멸돼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려면 밤낮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제 목

두 번째 환상: 7인 심판2 (계 6:9~17)

서 론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3가지 심판 시리즈를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7인 시리즈입니다.

1. 일곱인 심판 2

- (1) 4가지 인 심판(1-8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 도구들
- (2) 다섯 번째 인(9-11절):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갚아 달라고 기도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 (3) 여섯 번째 인(12-17절): 우주의 파멸을 가져오는 마지막 심판(구약과 고대 문헌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표현-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함, 별들이 떨어짐,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림)
- (4)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17절)

본 론

2. 교훈

- (1) 다섯째와 여섯째 인의 내용은 무엇인가?
- (2) 앞의 네가지 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3)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

결 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이태수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안혜진 집사	박대수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심지숙 집사	윤국로 집사
주 방 봉 사	청소년부/청년부	바울회

매일 Q.T.		원망과 탐욕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날짜 : 4월 7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문	민수기 11:1~9		
말씀요약	원망하는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불이 붙은 그곳을 디베라라 부릅니다.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생각하며 음식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목상질문 1	디베라 사건 11:1~3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셨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고쳐 나가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백성의 탐욕과 불평 11:4~9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구한 음식들은 무엇인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내가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민수기 11장 4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는 공동체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해 길을 나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크고 작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매일 하늘의 것으로 먹여 주심에도 더 좋은 것을 구했던 탐욕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기뻐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구별된 레위인의 헌신”	
찬양과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425)
목상 나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으면 키워 주신 부모님에게 그대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첫 월급봉투를 건네며 “지금까지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봉투를 받은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거나 혹은 “네가 더 필요할 텐데 어찌 이걸 다 주느냐”라며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에 응답함으로써 더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열매와 삶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나누기	민수기 8:14~26
목상포인트	본문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 하나님께 봉사자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14~19절).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러졌으나 살아 있는 제물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회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레위인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회막과 성전 봉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의 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3:13)는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제사장 직분의 전조이자 예표로 이해됩니다. 레위인의 구별됨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히 7:23~25). 나아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라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레위인의 역할과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앙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관찰과목상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 성막 봉사에 전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9절)
적용하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구별해 적재적소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라고 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자신의 삶과 내면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기도	

매일 Q.T.		영적 질서를 세우는 징계와 회복	날짜 : 4월 11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본문	민수기 12:9~16		
말씀요약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아론이 간청하자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다가 그가 들어온 후에 행진해 바란 광야에 진을 칩니다.		
목상질문 1	나병에 걸린 미리암 12:9~12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목상질문 2	모세의 중보 기도 12:13~16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셨나요? 회복을 위해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이는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12장 13절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제발'(히브리어로 '나')이라는 단어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 줍니다. 모세는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를 향해 악평과 악담을 하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넓혀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사람도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드러내는 충직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고뇌하는 지도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날짜 : 4월 8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본문	민수기 11:10~23		
말씀요약	백성을 혼자 감당 못 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백성에게는 몸을 거룩히 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모세가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모세의 고뇌와 탄식 11:10~15 백성의 불평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나요? 내가 지도자의 고충을 헤아려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의 대안 11:16~23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탄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이 열어 주신 선한 길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11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동역을 통해 세워집니다.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혼자 이끌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사역 공동체가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갈등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 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한없는 지혜로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영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날짜 : 4월 9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본문	민수기 11:24~35		
말씀요약	모세가 장로 70명을 장막에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주시니 백성이 이틀간 종일 모읍니다. 그들의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시니, 욱심을 낸 백성이 기브릇 핫다아와에 묻힙니다.		
목상질문 1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 11:24~30 진영에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 나는 기꺼이 응원하나요?		
목상질문 2	탐욕의 결과 11:31~35 약속대로 고기를 주신 후 하나님이 백성을 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게 어떤 태도와 기도가 필요할까요?		
한절묵상	민수기 11장 33절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회개하지도,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백성이 당면한 결핍은 고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결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 시기하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교만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탐욕이 꿈틀대는 순간마다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은 지도자 비방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날짜 : 4월 10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본문	민수기 12:1~8		
말씀요약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은 모세 뿐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와는 대면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론과 미리암에게 알리시며, 모세를 비방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목상질문 1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 12:1~3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그의 리더십에 도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목상질문 2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변론 12:4~8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어떻게 변호하셨나요?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12장 3절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경건한 영적 상태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화내지 않고,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다른 이의 허물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거나 시기할 때도, 그들로부터 억울한 평을 들을 때도 스스로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저를 변호해 주시며 제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